

# 美國에 있어서의 圖書館 機械化 現況과 情報學에 관한 教育

崔 錫 浩  
美國南加州大教授

編輯者註:本文은 비블리아 學會가 지난 8月18日 成大司書教育  
院에서 開催한 세미나의 發表主題를 要約한 것이다.

한 국가의 科學·技術·文化·發展과 도서관의 發展 尺度는 긴밀한 相關關係가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그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落後된 現狀에 있다. 도서관에 대한 社會的 認識 問題부터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圖書館人들도 도서관의 사회적 임무와 重責을 社會人에게 認識시켜야 할 의무도 큰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現在와 같은 情報爆發 (Information Explosion)에 대해 구태의연한 도서관의 制度와 施設 및 서비스를 재검토하는 도서관이 맡은 重責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最近 컴퓨터의 손이 뻗히지 않는 곳이 없다. 도서관도 그 例外일 수는 없고 그 컴퓨터를 도서관에 活用함으로써 그야말로 도서관이 發揮할 수 있는 諸般의 社會적 役割을 가능케 할 것이다. 즉, 冊 중심의 도서관에서 情報(Information)중심의 도서관이 되어가고 현재 爆發的으로 생산되는 情報를 유용가치있는 것으로 轉換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도서 정보 분야에 “정보는 힘이다”(Information is Power)라는 표현이 의미 있게 擡頭되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도서관에 使用하느냐 하는 문제를 概略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컴퓨터는 人間이 조작해 낸 것이지만 기억력과 正確性·계산속도 등은 人間이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基本能力을 必要에 따라서 人間 마음대로 適用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活用面은 첫째 반복업무의 代行인데 쉽게 말해서 도서관에서는 똑같은 內容의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많다. 즉 도서대출 도서구입·목록작성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컴퓨터에 使用할 때 요즘 말하는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란 것이다. 둘째로는 도서관 협력망(Library Network)을 組織하는데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使用할 수 있다. 가령 相互貸借을 위한 종합목록(Union Catalog)의 발행과 공동수서(Cooperation acquisition)을 하는데도 컴

퓨터를 活用할 때 시간적·경제적 有用性的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적이거나 전국적인 情報組織網(Information Network)을 發展시키고자 할 때는 컴퓨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요즘 산업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볼 때 좋은 情報를 신속 精確하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화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普遍化시켜야 한다. 어떠한 研究家도 허공에서 부터 무엇을 開發해 내거나 論理를 구상해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축적된 人類知식을 바탕으로 해서 補充·보완·發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상 연구 분야에 어떠한 연구 논문이 나타나 있는지를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가려낼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努力의 낭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미널(CRT)앞에 앉아 어떤 분야에 관한 연구문이라 할지라도 저자·서명·연도는 물론 발췌문까지 逐條에서 색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開發되어 使用되고 있다. 한국에서 하나의 책이 出版되어 어느 한 司書에 의해 分類가 되면 두번 다시 다른 司書는 똑같은 努力을 할 必要가 없으니 국가적으로 볼 때 人力消耗을 그 만큼 節약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나가 개인집에서 TV를 利用해서 읽고자 하는 책을 읽고 연구 논문을 찾아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면 도서관학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어떠한급변하는 現況에 대처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도서관을 취급하는 時代가 지나고, 情報를 중점적으로 管理하는 情報學의 대두가 바로 이 結果의 生産物이다. 정보학은 도서관학은 물론 전자계산학·심리학·경영학·행정학·언어학등의 계단 분야의 종합이라 볼 수 있겠다.

컴퓨터에 관한 기본원리·프로그래밍·업무분석(Systems Analysis)·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색인·초록(Indexing and Abstracting)·코딩이론(Coding theory)·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등의 基本 情報科目들을 한국 도서관 教育課程에 하루 빨리 보강교육하여 司書는 情報時代(Information age)에 管理者로서 손색없는 能力을 갖추고 社會에 배출되어 도서 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판도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